

4

하루 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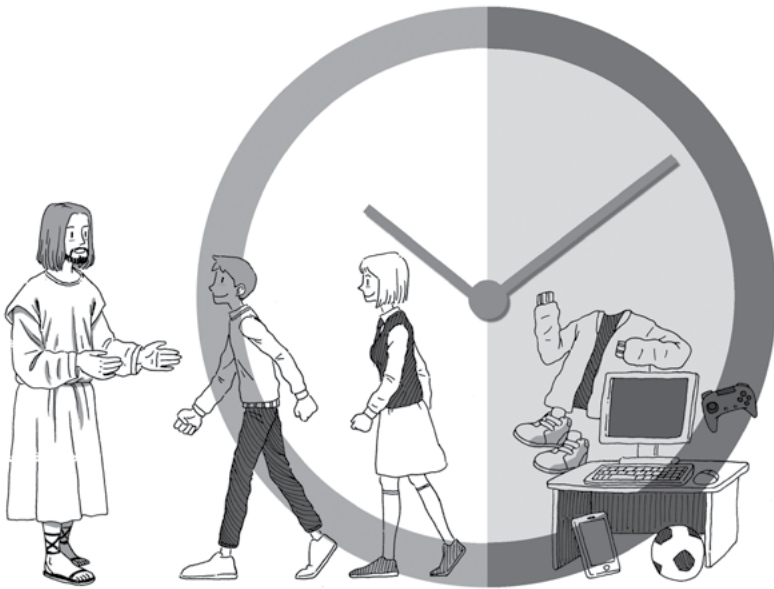
엡 5:15~21, 벘전 4:7~14

찬양 18장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 69장 (맑고 밝은 날)

오늘 배울



1.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압니다.
2. 하루 일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만물의 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을 차리고
 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벘전 4:7~10)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5~16)

See then that you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Eph 5:15~16)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2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시간은 생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써 봅시다(엡 5: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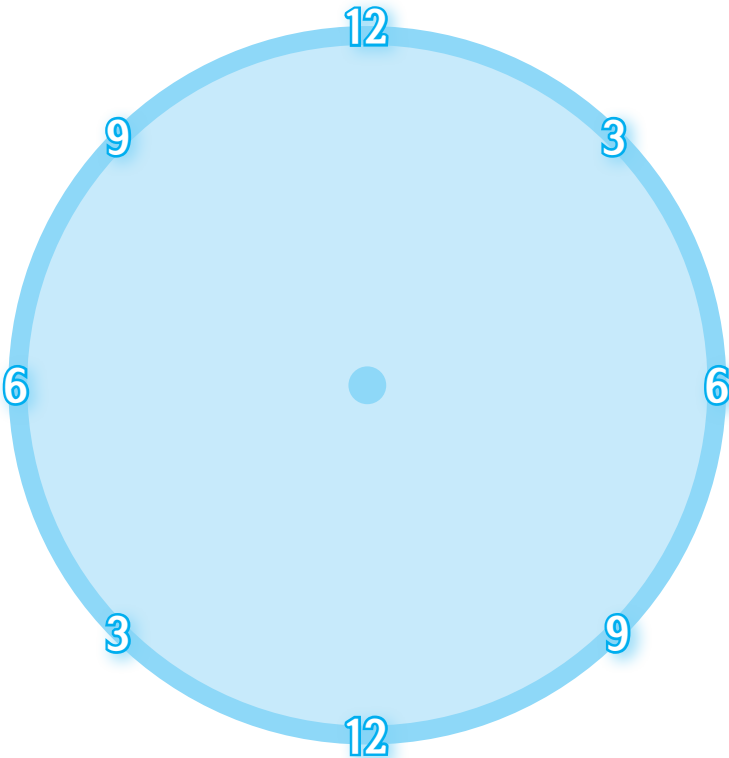
- 2 <보기>에서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순으로 나열해 봅시다.

- <보기>
- 학교 수업 시간
 - 친구들과 노는 시간
 - 성경 읽는 시간
 - 기도하는 시간
 - 혼자 공부하는 시간
 - PC 사용 시간
 - 휴대폰 사용 시간
 - 전도하는 시간
 - 참빛하는 시간
 - TV 보는 시간
 - 교제 시간
 - 찬양하는 시간
 - 그 밖의 시간

③ 나의 하루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고칠 점을 찾아봅시다.

구분	나의 모습	고칠 점
아침에 일어난 후		
학교에서		
가정에서		
밤에 잠자기 전		

④ 3번의 고칠 점을 바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6: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시 34: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71:1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수

행 24:16

목

고전 15:58

금

엡 5:15~16

토

딤후 3:15



1440만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다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원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아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 분이 말하기를 오늘 그 돈을 찾아가서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가다 썼습니다. ‘에이, 한번 기분이나 내보자’하고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엔 자꾸만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分)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원은 안주셨지만 1440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두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맡겨둔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자.”



질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인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구원 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라고 말씀하셨던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를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눅 24:47)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에베소 교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회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뒤우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교제가 멀어졌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그곳에 기근이 있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벤엘로 돌아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벤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3~4)

신앙 생활하다가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살펴보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다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